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혼례관행 변화에 관한 연구: 196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Marriage Ceremonies Science Industrialization in Korea:
Focused on 1960~2000

상지대학교 생활과학 산업학과
교 수 안혜숙**

Dept. of Home Science & Industry, Sangji University
Professor: Hei sook Ah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ill attempt to show how marriage ceremonies in Korea have reflected marriage custom influences from science and industrialization the study focuses on changes in traditional features. As a result of science and industrialization, the social patterns of Korean marriages have considerably changed, due to the impact of western values.

There are three stages of the Korean marriage ceremony: before the ceremony (Sun-rye), the ceremony (Bon-rye) and after the ceremony (Hu-rye). The research examined how these marriage customs were influenced by science and industrialization. The instruments were 750 questionnaires, analyzed through data processing and personal interviews with 25 married wo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making use of the SPSS program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χ^2 -test.

The results suggested that, since 1960, Korean marriage ceremonies mainly conformed to the marriage customs of traditional society. Since 1970, traditional customs of the

* 이 논문은 2008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안혜숙 (hsahn@sangji.ac.kr)

before the ceremony (Sun-rye) process have been, in large part, eliminated. The ceremony (Bon-rye) process has been changed to western style, and the after the ceremony (Hu-rye) process has been altered to some degree.

Key Words : 혼례관행(marriage customs), 혼례식전 선례(before the ceremony Sun-rye), 혼례식 본례(ceremony Bon-rye), 혼례식 후 후례(after the ceremony Hu-rye)

I. 서론

한국사회 혼례문화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종전의 탈유교적 가치관 지향으로 혼례관행에 있어 외래문화화소의 개입이 용이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이전에 정착되었던 생활양식이 서구문화와 일제의 강제력으로 한국인의 사회구조 및 생활변화에 파급되었다. 서양의 신식혼례가 소개되면서 기존 전통혼례의 틀에서 그 내용이 일부 서양식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개화기, 격동기를 거쳐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변화의 흐름에는 사회경제구조의 접목과 수용의 틀에서 몇 차례 혼례관행이 변화하는 계기를 겪어왔다. 특히 기독교와 서구의 합리주의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례에 있어서 급속한 간소화 및 합리화가 가능했다(강선미, 1999). 그러나 30년대와 40년대는 신식혼이 한국에 들어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로 지식층을 중심으로 신식혼이 크게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신식혼의 정확한 보급 비율이라든지 결혼예식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자료는 구해진 바 없는 실정이다 (김주희, 2003). 광복이후 민족적 격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쟁 후 복구를 위한 국가재건의 의지와 함께 60, 70년대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혼례관행은 서구식 양상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국민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으로 경공업중심의 개발에서 중화

학공업, 첨단산업으로 비중을 옮기게 된 시기이다 (장하경, 1996). 대중 소비품이 등장하고 TV 등 전자제품 보급과 자가용이용이 확산되며 생활경제가 훨씬 윤택해졌다. 88올림픽과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이후 외국문물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넓어졌으며, 일반인들의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도 이즈음부터이다.

90년대 들어 혼례관행은 산업화과정에서 전 문화, 고급화를 지향하며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비교적 풍요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젊은 층이 주요 소비자인 웨딩시장에서 기성세대의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혼례양식을 탈피하여 신세대의 감각을 반영한 감성비즈니스를 혼례관행에 접근시켜 차별화된 혼례관행에 마케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혼례의 상업화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소비사회로 진입하는 포스트 모던과 이미지의 소비의 특징으로 해석(Featherstone, 1992: 김미숙외, 2002)하기도 한다.

그 간 한국 혼례관행과 관련한 많은 연구(황경애, 이길표, 1994: 김모란, 1994: 장하경, 1996: 강선미, 1999: 이광자, 1999: 강정림, 2001: 김주희, 2003)들이 있었으나 변화과정에 대한 실증적 조사 자료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산업화 이후 혼례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연구는 없으며, 물질경제체제에서 혼례 관행을 증명해 줄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 혼례관행은 상업적 요소가 주도해 가는 추세로 이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혼

례관행의 변화를 가능할 기초자료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혼인한 사람들의 각 시기별 혼례관행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즉,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진행된 산업화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국혼례관행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혼례관행의 개념 및 내용

박혜인(1991)은 역사적인 문헌자료의 대부분이 혼례규범과 관행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혼례관행의 절차를 준비의례, 대례, 대례를 치룬 후의 의례로 나누었다. 이영재(2008)는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사회제도상 혼례는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과 절차를 의미하므로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관행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관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에서 혼례관행을 만남에서 청혼까지, 상견례에서 약혼까지, 혼례식에서 피로연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장하경(1996)은 혼례관행은 혼인제도와는 구별되는 의미이며, 법률이나 문헌의 기록보다는 일반인들에게 통용되어온 관습적 행례라 하며 혼례관행에 관하여 준비과정, 흡수과정, 결합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즉 혼례관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혼례절차 중심의 연구로 일관되어 논의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 혼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습적 행위를 혼례관행으로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적 혼례관행은 양가 혼인의사를 전달하는 의혼과 택일, 사주, 함, 대례, 우귀, 재행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혼례 과정을 준비의례, 대례, 대례를 치룬 후의례로 구분한 바에 따르면(박혜인 1991), 혼담, 사주, 택일 등이 준비의례이고, 신랑 초행 후가 대례이다. 대례후 의례는 신방, 재행, 신행, 폐백과 문안인사들의 절차 등이다. 사례편람(1884)에 나타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의례절차에 준거하여 혼인조건, 준비단계, 시행단계로 구분한 장철수(1992)는 그의 저서에서, 혼인조건은 의혼으로, 준비단계는 납채와 납폐, 시행단계는 친영으로 구조화하였다. 혼례과정을 준비과정, 결합과정, 흡수과정 등으로 구분한 경우(장하경, 1996) 의혼, 납채, 납폐를 준비과정에 포함시켰고, 친영, 혼인잔치 등을 결합과정으로 그리고 현구고례는 흡수과정에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한국 전통의 관습적 육례로서 김득중(1997)은 혼담(婚談), 사주(四柱), 택일(擇日), 납폐(納幣), 예식(禮式), 우귀(于歸) 등이 구분하였다. 혼례식 전에는 혼담, 사주, 택일, 납폐 등이 행해지고 혼인예식과 혼례식 후에는 우귀의 절차가 한국의 혼례관행으로 제시된 것이다. 최근에 김인옥(2007)은 한국혼례문화를 도식화하여 혼례구조를 선례, 본례, 후례 구분하였으며, 혼례행례 중 혼담, 사주, 택일, 납폐 등을 선례 관행으로 설명하였고, 혼례식은 본례, 우귀와 현구고(폐백)은 후례 관행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2. 관련된 선행연구

혼인시기에 따른 혼례관행에 관련된 연구는 문헌연구(박혜인, 1991: 황경애, 1994: 이광자, 1999: 김인옥, 2007: 이영재, 2008)나 사례연구(장하경, 1996: 강정림, 2001: 홍나영외 2인), 실태조사(박민자, 1991: 장하경, 1996)를 통해 연구한 바가 있다.

혼인시기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본 연구에서는 선례, 본례, 후례로 구분하여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선례는 배우자 만남에서 사주, 궁합, 택일, 함, 예단, 상견례 혹은 약혼식 등 혼례식 전(前) 과정을 말한다. 장하경(1996)의 연구에서 배우자만남과정은 1960년까지는 혼인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가의 주혼자끼리 정혼하는 의혼의 형식이 지배적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가 강조되고 최근에는 연애혼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강정림(2001)의 연구에서는 과거 40-50년대의 경우 절대적으로 중매에 의한 것이며, 60년대 이후 중매와 연애의 절충혼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연애혼이 증가되어오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박민자(1991)의 연구에서도 60년대 혼인한 사람들은 중매혼의 비율이 53.6%로 과반수가 되나 80년대 후반에 혼인한 사람들은 중매혼의 비율이 22.7%에 불과해 연애혼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궁합은 혼인할 신랑, 신부의 사주를 맞추어 혼인여부는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궁합에 대한 비중은 줄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장하경, 1996). 2005년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50%가 혼례식전 궁합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단자는 1960년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를 과도기로 198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다. 혼인 날짜를 택하는 방법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대부분 길일을 택하였으나 그 비율은 점차 줄고,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택하는 경우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장하경, 1996).

홍나영외 2인(2002)은 함들이 의식이 1960년대까지 흔히 행하여졌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어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민자(1991)의 연구에서는 60년대 혼인한 사

람들은 함을 받지 않거나 1-2가지 받은 사람의 비율이 8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80년대 후반 혼인한 사람들 중에는 3가지 이상 받은 사람이 43.9%로 나타나 함 품목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시대별 사회적 변동에 따라 예단 및 예물의 품목도 변화된다. 강정림(2001)의 사례조사에 의하면, 과거 1940, 50년대의 예단 및 예물은 비교적 간소하고 가내공업에 의한 수공업품이 일반적인 품목이었으나 1960, 70년대 이후부터는 예단 및 예물 품목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가화 되면서 양적, 질적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약혼식은 60-70년대까지 서울지역에서는 매우 중시하였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이르러서 약혼식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약혼식이 생략되고 부모님 상견례 정도로 간소화되는 경향이다(홍나영외 2인, 2002). 실제로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5)의 조사결과, 1999년(10%)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는 5%이하만 약혼식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례에는 혼례장소, 혼례형태, 혼례의상이나 화장, 사진촬영, 주례, 잔치(피로연), 하객수 등이 포함된다.

혼례식 장소는 1920년대부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예배당 뿐 아니라 절, 신문사, 강당 등에서까지 혼인식이 이루어졌다. 서울에 1930년대 전문 예식장이 생겼고, 농촌에까지 전문 예식장이 보급되어 예식장 결혼이 보편화 된 것은 60년대 후반이후이다(황경애, 이길표, 1994). 그러나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였으며 예식장에서 신부화장과 드레스를 끼워서 서비스하는 형태도 이때가 시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계천자외, 2009). 이영재(2008)는 그의 연구에서 종교인의 경우 해당 종교의 혼례식 절차에 따라 혼례를 올리는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개신교 86.3%, 천주교 77.3%, 불교 68.8%의 신랑과 신부가

모두 같은 종교인인 것으로 나타나 21세기 한국의 주요 혼례식 유형은 크게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비종교식 혼례와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식 혼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주례로 모시는 분에 관하여 장하경(1996)은 60년까지 대체로 집에서 동네 어른을 주례로 모셔 구식혼례식으로 치루고 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예식장 혼례가 등장하여 스승이나 종교계인사, 또는 직장상사를 주례로 모시고 신식결혼식을 치룬 후 식당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 김인옥(2007)은 혼례식을 위한 웨딩드레스를 구입할 수 있는 유통경로는 매우 다양한데, 예식장에서 일괄 구매된 드레스 중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직접 드레스숍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체형과 기호에 맞는 구매나 대여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웨딩메이크업의 경우는 대중매체의 보편화와 함께 미(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웨딩메이크업은 헤어숍에서 함께 운영되거나 전문 메이크업숍에서 운영되고 있다(최진은, 2006). 혼례사진을 위한 야외촬영은 “예식 후 남은 것은 사진뿐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빠르게 일반화되고 있는데, 야외촬영에 대한 반대는 25.2%에 불과하고 전체의 74.8%가 야외촬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계선자외, 2009).

혼례식 하객규모에 대하여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조사(1999)에서는 40%가 200명 이상을 희망하였고, 150명 이내로 하였을 때는 52.9%로 전반적으로 가능한 많은 하객 참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2003)조사에서는 20.4%가 200명 이상을 원하였고, 150명 이내라고 하였을 때는 57.5%로 나타났다(계선자, 2009).

혼례관행 중 혼례식 후 후례에는 현구고례

와 피로연, 신혼여행, 신접살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현구고례는 1960년대까지 시집에서 치루어 지다가 경제발전시기에 예식장에서 치루어지기 시작하여 1981년 이후 폐백장소는 예식장이 일반적인 장소가 되었다(장하경, 1996). 피로연은 본래 우리나라의 잔치가 혼인의례의 중심을 이루며 오랜 역사를 지녔으나 일제시대 이후 다과를 내는 일본식 피로연으로 인해 오늘날 탈바꿈되었다.(박혜인, 1991)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결혼식 후 피로연을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가정의례준칙의 강화로 수건이나 우산 등의 답례품을 나눠 주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되살아나서 최근까지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90년대 접어들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식당이나 또는 별도의 식당에서 뷔페로 피로연이 치르는 경향이 늘어났으며, 또 다른 차별화와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식장에서 서양식 정찬을 대접하는 피로연장이 마련되기 시작했다(이광자, 1999).

신혼여행의 관행도 시대에 따라 일제시대나 해방직후 50년대까지는 신혼여행지로 대부분 온양온천으로 떠났으나 60년대 이후부터 경주, 설악산, 속리산, 해인사, 제주도 등이 손꼽혔으며 그 중에서도 제주도 여행지가 일급으로 꼽혔다(이광자, 1999). 80년대 말 해외여행자유화 등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자 신혼여행도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신접살림에 대한 장하경(1996)의 조사에서는 1960년 이전 까지만 해도 시집에 합가하는 경우가 85.8%이었으나 60년대 이후 52.9%로 나타나 점차 감소추세로 나타났고, 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분가율(79.3%)이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선례, 본례, 후례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례조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산업화이후 선례(先禮)에 나타난 혼례관행의 변화는 혼례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산업화이후 본례(本禮)에 나타난 혼례관행의 변화는 혼례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산업화이후 후례(後禮)에 나타난 혼례관행의 변화는 혼례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작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혼례관행에 관한 선행연구(박민자, 1991; 황경애, 1994; 장하경, 1996; 홍나영, 2002; 김인옥, 2008)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산업화이후 혼례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연령, 학력, 혼인당시연령, 경제수준, 주성장지, 혼인시기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례관행에 대한 문항은 혼례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선례(혼례식전), 본례(혼례식), 후례(혼례식 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설문문항을 구성하게 되었다. 선례과정에는 배우자결정과정, 궁합, 사주, 택일, 약혼식, 함 등에 관하여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본례 과정에는 혼례식 형태, 주례자, 혼례장소, 혼례잔치, 잔치음식, 하객 수 등을 포함한 총 10문

항이다. 후례 과정에는 현구고례와 절값, 신혼여행, 신집살림장소 등에 관한 질문으로 6문항이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표본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듬어서 구성된 것이다. 20대부터 70대까지 각 세대 당 10명씩 총 60부의 설문지를 2009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접을 겸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예비 조사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예비조사과정에서 부적당한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최근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0대 기혼여성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워 본 조사에서는 제외시켰고 30대부터 7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한국사회 혼례관행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서울, 대전, 원주 등 중부지방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하였으며, 30대부터 70대까지 각 세대별 150부씩 총 750부를 본 조사 분석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일부 기재가 불충분한 것은 결측 처리하였다. 산업화이후 혼례관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각 혼인시기별 혼례관행에 대한 빈도분석과 χ^2 -test(교차분석)를 실시하였다. 1960년 이전에 혼인한 경우 60년대 항목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혼례에 관한 생활 문화적 특성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은 본 조사과정에 참여한 연구보조자들이 각 지역의 혼례관련 산업체의 고객이나 지인, 평생교육대학, 노인대학, 경로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수집

하였다.

한편 산업화와 관련한 혼례관행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를 세대별 5명씩 임의로 추출하여 사례조사를 겸하였다. 사례조사는 연구자가 2010년 5월10일부터 10일간 심층적 조사를 위해 개별면담 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자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하였다.

4. 조사대상

1) 설문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서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졸 이상(36.3%)이고 고등학교(24.7%)로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혼인당시 경제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에서 98%이상이 중류이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당시 연령은 조사대상자 중 40%가 25세-29세에 혼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혼인연령은 15세에서 39세까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혼인연령은 24.3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 성장지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이고 혼인 시기는 60년대 혼인한 사람이 70년대 혼인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사례조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선례과정의 배우자만남과, 본례과정의 혼례형태 및 장소, 후례과정의 혼인잔치와 현구고례 장소 등 혼례특성에 대한 기초 사항을 살펴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도구를 기초로 심층면접한 사례조사 대상자들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60년대 혼인한(사례 1-5) 사람들의 연령은 대체로 60대-70대이고 배우자는

주로 부모님이나 친지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혼례형태는 전통식과 현대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장소 또한 예식장의 상업공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N	%
학력	무학	51	6.8
	초등학교	185	24.7
	중학교	55	7.3
	고등학교	185	24.7
	대학교이상	272	36.3
계		750	100
혼인당시 경제수준	상	10	1.3
	중	422	56.2
	하	318	42.4
계		750	100
혼인당시 연령*	10대	186	25.9
	20-24세	168	23.5
	25-29세	286	39.9
	30-34세	67	9.4
	35-39세	10	1.3
계		717	100
주 성장지	경기도(서울/경기도)	251	33.4
	강원지방	232	30.9
	충청지방(대전/충청도)	122	16.3
	경상지방(대구/부산/경상도)	75	10.0
	전라지방(광주/전주/전라도)	59	7.9
	기타(제주도/이북5도)	11	1.5
	계	750	100
혼인시기*	1960-1969	218	31.5
	1970-1979	57	8.2
	1980-1989	165	23.8
	1990-1999	147	21.2
	2000-2009	106	15.3
계		693	100.0

* 결측치 제외

〈표 2〉 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혼인시기/ 사례	구분	연령대	학력	혼인당시 경제수준	주 성장지	배우자만남 과정	혼례 형태	혼례장소	혼례잔치	현구고례 장소
1960년대	사례 1	60대	중학교	상류층	경기도	친지소개	현대식	예식장	시택	시택
	사례 2	70대	고등학교	중하류층	경기도	부모님소개	현대식	예식장	시택	현구고례 안함
	사례 3	70대	고등학교	상류층	경상도	친지소개	종교식	교회	친정	친정
	사례 4	70대	중학교	중류층	충청도	친지소개	전통식	친정집	친정	시택
	사례 5	70대	중학교	상류층	경기도	친지소개	전통식	친정집	친정	시택
1970년대	사례 6	50대	대학교	중류층	서울	증매인소개	현대식	호텔	식장내 피로연장	호텔 내 페백실
	사례 7	50대	고등학교	중류층	경상도	친지소개	현대식	예식장	일반 음식점	식장 내 페백실
	사례 8	60대	고등학교	중하류층	부산	친지소개	현대식	회관	식장내 피로연장	시택
	사례 9	60대	중학교	상류층	전라도	당사자만남	현대식	예식장	일반 음식점	시택
	사례 10	60대	고등학교	중류층	경기도	친지소개	현대식	예식장	일반 음식점	식장 내 페백실
1980년대	사례 11	50대	대학교	중류층	서울	부모님소개	현대식	예식장	일반 음식점	식장 내 페백실
	사례 12	50대	대학교	중류층	서울	친지소개	현대식	예식장	친정	식장 내 페백실
	사례 13	50대	고등학교	중류층	경기도	부모님소개	현대식	예식장	친정	시택
	사례 14	50대	대학교	중류층	서울	당사자만남	현대식	회관	일반 음식점	식장 내 페백실
	사례 15	40대	대학교	중상류층	서울	친지소개	현대식	예식장	식장 내 피로연장	식장 내 페백실
1990년대	사례 16	30대	대학교	중상류층	서울	당사자만남	현대식	예식장	식장 내 피로연장	식장 내 페백실
	사례 17	40대	고등학교	중류층	서울	당사자만남	종교식	회관	식장 내 피로연장	식장 내 페백실
	사례 18	30대	고등학교	중류층	전라도	친지소개	현대식	예식장	식장 내 피로연장	식장 내 페백실
	사례 19	40대	고등학교	중류층	서울	친지소개	현대식	예식장	식장 내 피로연장	식장 내 페백실
	사례 20	40대	대학교	중류층	서울	친지소개	현대식	회관	일반 음식점	식장 내 페백실
2000년대	사례 21	30대	대학교	중류층	경기도	당사자만남	현대식	호텔	호텔 내 피로연장	호텔 내 페백실
	사례 22	30대	대학교	중상류층	서울	당사자만남	현대식	예식장	식장 내 피로연장	현구고례 안함
	사례 23	30대	고등학교	중하류층	서울	친지소개	현대식	회관	일반 음식점	식장 내 페백실
	사례 24	30대	대학교	중류층	강원도	당사자만남	현대식	예식장	식장 내 피로연장	식장 내 페백실
	사례 25	30대	대학교	중상류층	서울	친지소개	현대식	호텔	식장 내 피로연장	식장 내 페백실

과 친정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식장에서 혼례를 하더라도 잔치는 시댁에서나 친정에서 하고 현구고례 또한 시댁에서 주로 하였다.

70년대에 혼인한 사례자(사례 6-10)들의 배우자 만남은 친지소개, 부모님 소개, 중매인 소개, 당사자끼리 만남등 다양하게 나타났고, 혼례형태는 현대식으로 전문예식장이나 호텔, 회관등 그 장소도 다양하나 집에서 하는 예는 없었다. 혼례잔치는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하고 현구고례 장소는 시댁이나 식당 내 폐백실이용이 공존하고 있었다.

80년대 혼인한 사례자(사례 11-15)들은 주 연령층이 50대이며 혼례식은 예식장이나 회관에서 하고 있으나 혼례잔치는 일반음식점 혹은 친정집에서 하는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현구고례 장소도 식당내 폐백실에서 주로 하지만 시댁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90년대 혼인한 사례자(사례 16-20)의 주 연령대가 30-40대이며 혼례는 예식장, 회관, 호텔 등이고 혼례잔치와 현구고례 모두 식당 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 최근에 혼인한 사례자(사례 21-25)의 주 연령은 30대이며 당사자 간 연애로 배우자 만남이 늘고 주로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혼례를 하며 혼례잔치나 현구고례 장소 모두 식당 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960년대는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혼인시기별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례관행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30대에서 70대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혼인시기를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혼례관행에 대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된 내용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선례관행의 변화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부터 약혼에 이르기까지 혼례식전 관행에 해당되는 선례(先禮)과정의 관한 조사 결과, 하위영역별 χ^2 -test 결과 전 문항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각 영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혼인을 결정하기까지 배우자와 만나게 된 경로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님소개로 인한 만남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70년대 이후에는 부모님소개와 더불어 친척이나 친구등 친지의 소개로 만남의

<표 3> 배우자 선택 과정

내용 n(%) 혼인시기	친지소개	부모님 소개	중매인 소개	결혼정보 업체	당사자 만남	기타	전체	χ^2 (df)
1960년대	55(25.2)	114(52.3)	38(17.4)	0(0.0)	8(3.7)	3(1.4)	218(100)	*** 289.35(30)
1970년대	22(38.6)	5(8.8)	5(8.8)	0(0.0)	20(35.1)	5(8.8)	57(100)	
1980년대	74(44.8)	20(12.1)	11(6.7)	0(0.0)	54(32.7)	5(3.0)	165(100)	
1990년대	55(37.4)	5(3.4)	3(2.0)	0(0.0)	78(53.1)	6(4.1)	147(100)	
2000년대	40(37.1)	6(5.7)	4(3.8)	1(1.0)	52(49.5)	3(2.9)	106(100)	
전체	246(35.5)	150(21.6)	61(8.8)	1(0.1)	212(30.6)	0(3.2)	693(100)	

***P<.001

경로가 전환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친지소개는 친척할머니, 고모, 친정오빠, 사촌오빠 등(사례 1, 3, 4, 57) 가까운 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의 만남을 통한 배우자선택의 경로가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학교나 교회, 직장 (사례 16, 17, 21, 22, 24) 등 사회활동 중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사회활동을 통한 이성과의 접촉 빈도가 잦고 젊은 세대들의 상대에 대한 호감도 표현이 보다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이성교제 태도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공합/사주 여부

내용 n(%) 혼인시기	공합 여부			χ^2 (df)
	공합 봄	공합 안봄	전체	
1960년대	160(73.4)	56(25.7)	218(100)	*** 64.80(10)
1970년대	20(35.1)	36(63.2)	57(100)	
1980년대	72(43.6)	92(55.8)	165(100)	
1990년대	60(40.8)	87(59.2)	147(100)	
2000년대	50(47.6)	55(52.4)	106(100)	
전체	362(52.2)	327(47.2)	693(100)	
내용 n(%) 혼인시기	사주 받음 여부			χ^2 (df)
	사주 받음	사주받지 않음	전체	
1960년대		44(20.2)	218(100)	*** 38.48(10)
1970년대	45(78.9)	11(19.3)	57(100)	
1980년대	113(68.5)	50(30.3)	165(100)	
1990년대	85(57.8)	61(41.5)	147(100)	
2000년대	55(52.4)	50(47.6)	105(100)	
전체	469(67.7)	216(31.2)	693(100)	

***P<.001

한편, 혼인결정시 공합을 보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표 4 참조) 60년대까지는 공합을 보는 경우가 70%를 넘었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공합을 안 보고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랑 측으로부터 사주단자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표 4 참조),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사주단자를 받은 경우가 더 받았으나 그 비율은 매시기마다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혼인날 택일형태는 공휴일이나 국경일 보다 60년대부터 최근까지 길일을 택해 혼인날을 정하는 예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혼인날 택일방법에 대해 장하경(1996)의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길일보다는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80년대 이후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혼인날로 택하는 경

〈표 5〉 혼인날 택일 형태

내용 n(%) 혼인시기	공휴일 (국경일)	길일 택함	직장 쉬는날	예식장 사용가능날	기타	전체	χ^2 (df)
1960년대	31(14.2)	93(42.7)	5(2.3)	5(2.3)	83(38.1)	218(100)	*** 147.891(25)
1970년대	14(24.6)	23(40.4)	12(21.1)	4(7.0)	4(7.0)	57(100)	
1980년대	47(28.5)	73(44.2)	20(12.1)	13(7.9)	10(6.1)	165(100)	
1990년대	33(22.4)	56(38.1)	29(19.7)	16(10.9)	13(8.8)	147(100)	
2000년대	20(19.0)	46(42.9)	10(9.5)	19(18.1)	11(10.5)	106(100)	
전체	145(20.9)	291(42.0)	76(11.0)	57(8.2)	121(17.5)	693(100)	

***P<.001

우가 20%정도로 분포를 보였다.

신랑 측으로부터 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77%가 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조). 그리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함을 받은 경우가 80%이상이었으나 90년대부터는 70%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함진아비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주로 신랑친구가 담당해 왔으나 2000년대부터는 신랑이 직접 함을 지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함접이 관행에서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함값은 60년대까지만 해도 나타나지 않으나, 70년대 신랑친구들 술값으로 5만원 정도 지불한 사례(사례 6)가 나타나 이때부터 함값이 돈으로 지불되는 관행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 이후 함 값 (사례11, 15.)은 30만원대이었고, 90년대는 함값이 100만원까지 (사례17, 18, 20)

오르는 등 한때 함접이 관행이 성행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함접이 관행이 사라지고 함도 신랑이 직접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함값 지불 사례도 줄어들었다

신부가 신랑 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관행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왔으나 2000년대 들어 예단을 보내는 경우(43.8%)보다 예단대신 현금(47.6%)으로 보내는 경우가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음(표 7 참조)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혼례관행에서 현물보다는 현금예단이 더 보편화될 것이라 여겨진다. 약혼식은 상견례의 형태로 간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90년대 이후 약혼식은 사라지고 상견례로 대신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약혼식의 의미가 매우 약화

〈표 6〉 함 여부

혼인시기	내용 n(%)	함 받음 여부			χ^2 (df)
		함 받음	함 받지 않음	전체	
1960년대	175(80.6)	42(19.4)	217(100)	*** 15.064(5)	
1970년대	46(80.7)	11(19.3)	57(100)		
1980년대	137(83.5)	27(16.5)	164(100)		
1990년대	103(70.5)	43(29.5)	146(100)		
2000년대	71(67.6)	34(32.4)	105(100)		
전체	533(77.2)	157(22.8)	690(100)*		

혼인시기	내용 n(%)	함진아비**				χ^2 (df)
		신랑	신랑친구	친척	기타	
1960년대	36(20.7)	66(37.9)	58(33.3)	14(8.0)	174(100)	*** 128.32(15)
1970년대	10(21.7)	24(52.2)	10(21.7)	2(4.3)	46(100)	
1980년대	38(27.3)	90(64.7)	7(5.0)	4(2.9)	139(100)	
1990년대	30(26.8)	70(62.5)	8(7.1)	4(3.6)	112(100)	
2000년대	47(65.3)	19(26.4)	3(2.8)	5(5.6)	73(100)	
전체	161(29.6)	269(49.4)	86(15.8)	28(5.1)	544(100)*	

* 결측치 제외

** 함받은 사람만 표기

***P<.001

〈표 7〉 예단 및 약혼식

혼인시기	내용 n(%)	예단전달					$\chi^2(df)$
		예단보냄	예단 안 보냄	예단대신 현금보냄	기타	전체	
1960년대	124(57.9)	60(28.0)	18(8.4)	12(5.6)	214(100)	*** 151.24(15)	
1970년대	36(67.9)	11(20.8)	5(9.4)	1(1.9)	53(100)		
1980년대	122(74.4)	11(6.7)	31(18.9)	0(0.0)	164(100)		
1990년대	81(55.5)	5(3.4)	57(39.0)	3(2.1)	146(100)		
2000년대	46(43.8)	7(6.7)	50(47.6)	2(1.9)	106(100)		
전체	409(59.9)	95(13.9)	161(23.6)	18(2.6)	683(100)*		

혼인시기	내용 n(%)	약혼식				$\chi^2(df)$
		약혼식을 함	상견례로 함	아무것도 하지않음	전 체	
1960년대	8(3.7)	116(53.5)	93(42.9)	217(100)	*** 192.83(10)	
1970년대	17(30.4)	28(50.0)	11(19.6)	56(100)		
1980년대	58(35.2)	91(55.2)	16(9.7)	165(100)		
1990년대	24(16.4)	115(78.8)	7(4.8)	146(100)		
2000년대	5(4.8)	93(88.6)	8(6.8)	106(100)		
전체	112(16.2)	443(64.2)	135(19.6)	690(100)*		

* 결측치 제외

***P<.001

되리라 전망한다.

신부의 혼인준비 시 도움을 주는 사람은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주로 준비를 도와주었으나 매 시기마다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는 줄고 2000년대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며 혼자서 준비하는 경우(15.2%)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표 8〉 혼인준비 조력자

혼인시기	내용 n(%)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주민	친구	혼자서 준비	웨딩 전문인	친척	기타	전체	$\chi^2(df)$
1960년대	189(86.7)	19(8.7)	4(1.8)	3(1.4)	0(0.0)	0(0.0)	2(0.6)	0(0.0)	218(100)	*** 218.17(40)	
1970년대	40(70.2)	14(6.7)	0(0.0)	0(0.0)	3(5.3)	0(0.0)	0(0.0)	0(0.0)	57(100)		
1980년대	133(80.6)	15(19.3)	0(0.0)	1(0.6)	10(6.1)	3(1.8)	0(0.0)	2(5.0)	165(100)		
1990년대	89(60.5)	24(16.3)	1(1.1)	6(4.1)	20(13.6)	6(4.1)	0(0.0)	0(0.0)	147(100)		
2000년대	45(42.6)	9(8.6)	0(0.0)	5(4.8)	16(15.2)	18(3.2)	0(0.0)	13(12.4)	106(100)		
전체	496(71.6)	81(11.7)	5(0.7)	15(2.2)	49(7.1)	21(3.0)	2(2.0)	21(3.0)	693(100)		

***P<.001

2. 본례관행의 변화

전통혼례과정에서 현대식으로 대치된 부분이 이 본례 과정으로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혼례식 형태, 혼례장소, 혼례복, 신부화장, 사진 등 혼례준비를 위한 물품과 주례자, 잔치장과 잔치음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례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화이후 현대식 혼례 형태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위영역별 문항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에 보는 바와 같이, 혼례장소와 형태는 70년대 이후 현대식의 예식장에서 혼례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혼례형태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 60년대 이전까지만 해

도 대다수가 집에서 전통식으로 혼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에까지 전문예식장이 보급된 것이 60년대 후반 이후에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황경애외, 1994).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도 60년대까지는 친정집에서 전통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었으나(사례 4, 5), 70년대 이후부터는 예식장, 회관, 호텔 이용이 일반화되었다. 더불어 혼례형태도 70년대부터 현대식 혼례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르는 현대식 혼례관행이 보편화 된 것은 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60년대 이후 혼례식을 위한 혼례복, 신부화장, 혼례사진 등 혼례준비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표 10 참조), 혼례복은 혼례형태가 현대식으로 바뀌고 예식장이용이 본격화되는 70년대부터 예식장 내

〈표 9〉 혼례식 및 혼례장소

내용 n(%)	혼례식				χ^2 (df)					
	전통식	현대식	종교식	전체						
1960년대	198(91.7)	15(6.9)	3(1.4)	216(100)	*** 580.66(10)					
1970년대	2(3.5)	45(78.9)	10(17.5)	57(100)						
1989년대	2(1.2)	144(87.3)	19(11.5)	165(100)						
1990년대	3(2.0)	117(79.6)	27(18.4)	147(100)						
2000년대	2(1.0)	84(80.0)	20(19.0)	106(100)						
전체	207(30.0)	405(58.6)	79(11.4)	691(100)*						
내용 n(%)	혼례장소									χ^2 (df)
	예식장	교회	성당	사찰	회관 (강당)	호텔	집	기타	전체	
1960년대	18(8.3)	4(1.8)	2(0.9)	2(0.9)	5(2.3)	0(0.0)	187(85.8)	0(0.0)	218(100)	*** 622.23(35)
1970년대	33(58.9)	4(7.1)	4(7.1)	5(8.9)	3(5.4)	5(8.9)	1(1.8)	1(1.8)	56(100)	
1980년대	128(77.6)	14(8.5)	6(3.6)	2(1.2)	5(3.0)	8(4.8)	0(0.0)	2(1.2)	165(100)	
1990년대	105(71.4)	13(8.8)	3(2.0)	0(0.0)	14(9.5)	8(5.4)	0(0.0)	4(2.7)	147(100)	
2000년대	61(58.1)	15(14.3)	2(1.9)	0(0.0)	9(8.6)	15(14.3)	1(0.3)	3(2.9)	106(100)	
전체	345(49.9)	50(14.3)	17(2.5)	9(9.0)	36(5.2)	36(5.2)	189(27.3)	10(1.4)	692(100)*	

* 결측치 제외

*** $P<.001$

〈표 10〉 혼례복과 신부화장

내용 n(%) 혼인시기	혼례복							χ^2 (df)
	마을 보관용	예식장내 드레스숍 이용	전문드레 스숍에서 대여함	친지에게 빌려입음	드레스숍 맞춤	기타	전체	
1960년대	107(49.3)	7(3.2)	2(0.9)	79(36.4)	12(5.5)	10(4.6)	217(100)	*** 635.64(25)
1970년대	2(3.5)	35(61.4)	13(22.8)	0(0.0)	6(10.5)	1(1.8)	57(100)	
1980년대	0(0.0)	106(64.2)	46(27.9)	2(1.2)	10(6.1)	1(0.6)	165(100)	
1990년대	1(0.7)	91(61.9)	48(32.7)	1(0.7)	6(4.1)	0(0.0)	147(100)	
2000년대	1(0.0)	34(32.4)	65(61.9)	1(1.0)	2(1.9)	3(2.9)	106(100)	
전체	111(16.0)	273(39.5)	174(25.1)	83(12.0)	36(5.2)	15(2.2)	692(100)*	
내용 n(%) 혼인시기	신부화장							χ^2 (df)
	가족이 화장해줌	친척이 화장해줌	친구가 화장해줌	예식장 내 미용실 이용	전문 미용실 이용	기타	전체	
1960년대	146(67.3)	37(17.1)	13(6.0)	11(5.1)	2(0.9)	8(3.7)	217(100)	
1970년대	2(3.5)	1(1.8)	0(0.0)	37(64.9)	13(22.8)	4(7.0)	57(100)	
1980년대	0(0.0)	4(2.4)	3(1.8)	108(65.5)	46(27.9)	4(2.4)	165(100)	
1990년대	0(0.0)	0(0.0)	0(0.0)	96(65.3)	47(32.0)	4(2.7)	147(100)	
2000년대	0(0.0)	1(1.0)	1(1.0)	34(32.4)	66(62.9)	3(2.9)	106(100)	
전체	148(21.4)	44(6.4)	17(2.5)	286(41.3)	174(25.1)	23(3.3)	692(100)*	

* 결측치 제외

*** P<.001

드레스숍을 이용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들어 전문드레스숍에서 혼례복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혼례관행의 변화가 있었다. 신부화장은 어디에서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67.3%가 가족이 해 준다고 응답하였고, 70년대 이후에는 60%이상이 예식장 내 미용실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전문 미용실을 이용(62.9%)하여 신부화장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혼례사진 촬영의 변화양상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60년대에는 주로(43.9%) 가족이 촬영을 해주거나 출장사진사(30.2%)가 혼례사진을 찍었다. 70년대 이후에는 예식장 내 사진관(59.6%)을 이용

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전문사진관(48.6%)에서 사진 촬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례준비과정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60년대 전통혼례 형태로 친정집에서 혼례를 치른 경우(사례4,5) 혼례복은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입고 화장은 동네어른이나 올케가 해 주는 등 가까운 친지가 대신해 주었다. 사진은 출장 사진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주례자는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50%이상이 친지어른이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스승(은사)이 주례를 맡아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문 주례인을 모셔서 혼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주례인은 90년대 이후부터 종교계 인사

〈표 11〉 혼례사진과 주례자

내용 n(%) 혼인시기	혼인사진										χ^2 (df)
	출장사진사 이용	가족이 사진촬영	친구	예식장 내 사진관 이용	전문 사진관 이용	기타	전체				
1960년대	64(30.2)	93(43.9)	5(2.4)	11(5.2)	8(3.8)	31(14.6)	212(100)				*** 412.92(25)
1970년대	10(17.5)	6(10.5)	1(1.8)	34(59.6)	5(8.8)	1(1.8)	57(100)				
1980년대	58(35.2)	5(3.0)	1(0.6)	86(52.1)	15(9.1)	0(0.0)	165(100)				
1990년대	38(25.9)	5(3.4)	3(2.0)	71(48.3)	30(20.4)	0(0.0)	147(100)				
2000년대	17(15.2)	1(1.0)	3(2.9)	32(30.5)	51(48.6)	2(1.9)	105(100)				
전체	187(27.2)	110(16.0)	13(1.9)	234(34.1)	109(15.9)	34(4.9)	687(100)*				
내용 n(%) 혼인시기	주례자										χ^2 (df)
	스승 (은사)	종교계 인사	직장 상사	정계 인사	경제계 인사	전문 주례인	친지 어른	주례를 모시지 않음	기타	전체	
1960년대	24(11.1)	10(4.6)	0(0.0)	3(1.4)	1(0.5)	9(4.2)	113(52.3)	51(23.6)	5(2.3)	216(100)	*** 425.37(40)
1970년대	23(40.4)	7(12.3)	9(15.8)	4(7.0)	2(3.5)	6(10.5)	3(5.3)	0(0.0)	3(5.3)	57(100)	
1980년대	50(30.3)	31(18.8)	29(17.6)	10(6.1)	8(4.8)	23(13.9)	11(6.7)	0(0.0)	3(1.8)	165(100)	
1990년대	41(28.3)	34(23.4)	19(13.1)	14(9.7)	5(3.4)	16(11.0)	13(9.0)	0(0.0)	3(1.8)	145(100)	
2000년대	21(20.0)	25(23.8)	12(11.4)	3(2.9)	2(3.4)	30(28.6)	3(2.9)	1(1.0)	8(7.6)	106(100)	
전체	159(23.1)	107(15.5)	69(10.0)	34(4.9)	18(1.9)	84(12.2)	143(20.8)	53(7.7)	22(3.2)	689(100)*	

* 결측치 제외

*** P<.001

〈표 12〉 혼례잔치 장소와 잔치음식

내용 n(%) 혼인시기	혼례잔치장소								χ^2 (df)
	일반 음식점	예식장 내 연회장	친정집	시택	종교기관	잔치 않함	기타	전체	
1960년대	14(6.5)	10(4.6)	57(26.3)	113(52.1)	5(2.3)	13(6.0)	5(2.3)	217(100)	*** 530.69(30)
1970년대	18(32.7)	24(43.6)	4(7.3)	2(3.6)	4(7.3)	3(5.5)	0(0.0)	55(100)	
1980년대	38(23.3)	107(65.6)	3(1.8)	3(1.8)	9(5.5)	1(0.6)	2(1.2)	163(100)	
1990년대	37(25.5)	91(62.8)	0(0.0)	0(0.0)	4(2.8)	11(7.6)	2(1.4)	145(100)	
2000년대	8(7.6)	68(64.8)	0(0.0)	0(0.0)	4(3.8)	21(20.0)	4(3.8)	106(100)	
전체	115(16.8)	300(43.7)	65(9.5)	118(17.2)	26(3.8)	49(7.1)	13(1.9)	686(100)*	
내용 n(%) 혼인시기	잔치음식							χ^2 (df)	
	국수장국	한정식 (갈비탕)	서양식 (스테이크)	뷔페	중식	기타	전체		
1960년대	196(92.5)	14(6.6)	1(0.5)	0(0.0)	0(0.0)	1(0.5)	212(100)	*** 463.37(25)	
1970년대	25(46.3)	23(42.6)	2(3.7)	3(5.6)	1(1.9)	0(0.0)	54(100)		
1980년대	40(24.2)	101(61.2)	3(1.8)	21(12.7)	0(0.0)	0(0.0)	165(100)		
1990년대	30(20.5)	76(52.1)	4(2.7)	35(24.0)	0(0.0)	1(0.7)	146(100)		
2000년대	3(1.9)	33(31.4)	6(5.7)	64(61.0)	0(0.0)	0(0.0)	106(100)		
전체	294(43.0)	247(36.2)	16(2.3)	123(18.0)	1(1.0)	2(0.3)	683(100)*		

* 결측치 제외

*** P<.001

의 비중이 커지면서 90년대에는 23.4%, 2000년대 23.8%가 종교계 인사를 주례로 모시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영재(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를 지지해 주고 있다.

혼례식 후 혼례잔치 장소와 음식은 <표 12>에서와 같이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시택(52.1%)이나 친정(26.3%) 등 70%이상이 집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예식장 내 연회장에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조사에서도 60년대까지는 대부분 친정이나 시집에서 혼례잔치를 하였고, 이와 같은 현상은 80년대(사례12,13)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잔치음식으로 60년대만 해도 국수장국이 주 메뉴이었으나 70년대부터는 국수장국(46.3%)과

함께 전골이나 갈비탕 등 한정식(42.6%)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80년대와 90년대에는 한정식이 주 잔치메뉴로 이용되고 있다. 90년대(24.0%)부터 서양식 뷔페가 잔치음식으로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대중화되었음(61.0%)을 볼 수 있다.

한편, 혼례 시 양가에 참석하는 하객 수는 300명 이하(60년대와 80년대)이거나 300-400명(70년대와 90년대 이후)선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비용부담은 산업화이후 최근(2000년대)까지 양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혼례관행으로 정착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3 참조).

<표 13> 양가 참석 하객인원

내용 n(%)	양가 참가 하객 수							χ^2 (df)
	300명 이하	300-400명 정도	500-600명 정도	700-800명 정도	900-1000명 정도	기타	전체	
혼인시기								
1960년대	167(77.3)	35(16.2)	4(1.9)	4(1.9)	0(0.0)	6(2.8)	216(100)	*** 232.28(30)
1970년대	18(32.7)	23(41.8)	9(16.4)	3(5.5)	0(0.0)	2(3.6)	55(100)	
1980년대	81(49.4)	53(32.3)	26(15.9)	3(1.8)	1(0.6)	1(0.0)	164(100)	
1990년대	26(17.9)	73(50.3)	24(16.6)	16(11.0)	5(3.4)	3(0.7)	145(100)	
2000년대	10(8.6)	52(49.5)	23(21.9)	11(10.5)	7(6.7)	0(0.0)	106(100)	
전체	302(44.0)	236(34.4)	86(12.5)	37(5.4)	13(1.9)	12(1.7)	686(100)	
내용 n(%)	혼례비용부담					χ^2 (df)		
	신랑측	신부측	양가분담	기타	전체			
혼인시기								
1960년대	20(9.3)	29(13.5)	161(74.9)	5(2.3)	215(100)	*** 113.86(15)		
1970년대	4(7.3)	2(3.6)	48(87.3)	1(1.8)	55(100)			
1980년대	20(12.1)	7(4.2)	138(83.6)	0(0.0)	165(100)			
1990년대	24(16.3)	4(2.7)	118(80.3)	1(0.7)	147(100)			
2000년대	12(11.4)	1(1.0)	91(86.7)	2(1.0)	106(100)			
전체	80(11.6)	43(6.3)	556(80.8)	9(1.3)	688(100)			

* 결측치 제외

*** P<.001

3. 후례(혼례식 후) 관행의 변화

혼례식을 마친 후 후례 관행에는 현구고례와 신혼여행, 신접살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후례 관행의 하위영역별 문항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제외한 나머지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폐백이라 일컫는 현구고례(見舅姑禮)는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시택에 가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87.5%)이었으나 70년대에 예식장 내 폐백실 이용이 등장한 이래 최근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예식장 내에 있는 폐백실에서 이루어지는 현구고례는 80년대 이후부터는 80%이상이 예식장에서 행하는 혼

〈표 14〉 현구고례와 절값

혼인시기	내용 n(%)	현구고례장소					χ^2 (df)
		예식장내 폐백실	시택(본가)	종교기관	기타	전체	
1960년대	17(7.9)	189(87.5)	3(1.4)	7(3.2)	216(100)	*** 458.32(15)	
1970년대	35(63.6)	15(27.3)	4(7.3)	1(1.8)	55(100)		
1980년대	136(82.4)	10(6.1)	17(10.3)	2(1.2)	165(100)		
1990년대	125(85.6)	8(5.5)	10(6.8)	3(2.1)	146(100)		
2000년대	86(82.7)	4(2.9)	14(13.5)	1(1.0)	105(100)		
전체	399(58.1)	226(32.9)	48(7.0)	14(2.0)	687(100)		
혼인시기	내용 n(%)	현구고례시기					χ^2 (df)
		혼례식후 바로	혼례식후 친정에서 묵은 뒤	신혼여행 다녀와서	기타	전체	
1960년대	194(89.4)	17(7.8)	0(0.0)	6(2.8)	217(100)	** 30.91(15)	
1970년대	44(81.5)	5(9.3)	3(5.6)	2(3.7)	54(100)		
1980년대	159(96.4)	2(1.2)	3(1.8)	1(0.6)	165(100)		
1990년대	136(93.2)	3(2.1)	4(2.7)	3(2.1)	146(100)		
2000년대	99(95.1)	2(1.9)	1(1.0)	2(1.9)	104(100)		
전체	632(92.1)	29(4.2)	11(1.6)	14(2.0)	686(100)*		
혼인시기	내용 n(%)	절값여부			χ^2 (df)		
		절값받음	절값받지않음	전체			
1960년대	42(19.7)	171(80.3)	213(100)	*** 331.90(5)			
1970년대	40(76.9)	12(23.1)	52(100)				
1980년대	145(87.9)	20(12.1)	165(100)				
1990년대	137(93.2)	10(6.8)	147(100)				
2000년대	95(93.1)	8(6.9)	103(100)				
전체	459(67.5)	221(32.5)	680(100)*				

* 결측치 제외

*** P<.001

례관행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또한 현구고례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혼례식 직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4 참조). 실질적으로 사례조사에서도 60년대까지는 대부분 시댁에서 현구고례를 행하던 것을 70년대는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났다. 이때에 시댁(사례 8, 9)에서 하거나 예식장 내 폐백실(사례 6, 7, 10)에서 하는 형태가 공존하였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예식장 내 폐백실에서 현구고례 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현구고례때 절값을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절값에 대한 관행은 매우 드물고,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절값은 최근까지 90%를 상회하고 있어 하나의 혼례관행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

례조사과정에서 60년대 혼인한 응답자들 모두 절값은 없고 덕담을 들었다고 하였다(사례 1, 2, 3, 4, 5). 70년대에는 절값이 등장하고(사례 6), 80년대(사례13, 15)에 절값 관행이 이어져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모든 사례(사례 16-25)에서 절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른들이 절값은 줄때에는 절값이다(사례 21, 24, 25)라고 하며 주거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사례6, 13, 15, 16, 19, 23)라는 덕담을 해준다. 신혼여행가서 잘 놀다오라(사례11, 18, 20)며 주기도 하였다. 사례조사 응답자들은 절값을 신혼여행 여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사례 19, 21, 23)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친지 분들 선물 사는 데 유용하게 썼다(사례 16, 25)고 하였다. 절값은 예식장 내 폐백실에서

〈표 15〉 신혼여행과 신집살림

내용 n(%) 혼인 시기	신혼여행지														χ^2 (df)
	서울 투어	온천	설악산	부산	경주	제주도	동남아	유럽	호주, 뉴질 랜드	미주	남태 평양	여행 안감	기타	전체	
1960년대	4(1.9)	3(1.4)	3(1.4)	0(0.0)	3(1.4)	1(0.5)	0(0.0)	0(0.0)	0(0.0)	0(0.0)	0(0.0)	194(89.8)	8(3.7)	216(100)	*** 856.05(60)
1970년대	3(5.6)	8(14.8)	9(16.7)	10(18.5)	1(1.9)	10(18.5)	0(0.0)	0(0.0)	0(0.0)	0(0.0)	0(0.0)	9(16.7)	4(7.4)	54(100)	
1980년대	1(0.6)	19(11.5)	17(10.3)	11(6.7)	10(6.1)	84(50.9)	9(5.5)	0(0.0)	0(0.0)	4(2.4)	0(0.0)	4(2.4)	6(3.6)	165(100)	
1990년대	1(0.7)	4(2.7)	11(7.5)	2(1.4)	5(3.4)	72(49.3)	27(18.5)	0(0.0)	5(3.4)	4(2.7)	3(2.1)	3(2.1)	9(6.2)	146(100)	
2000년대	0(0.0)	0(0.0)	0(0.0)	2(1.9)	1(1.0)	21(20.2)	50(48.1)	4(3.8)	6(5.8)	11(10.6)	3(2.1)	1(0.3)	6(5.8)	105(100)	
전체	9(1.3)	34(5.0)	40(5.8)	25(3.6)	20(2.9)	188(27.4)	86(12.5)	4(0.6)	11(1.6)	19(2.8)	6(0.9)	211(30.8)	33(4.8)	686(100)*	
내용 n(%) 혼인 시기	신집살림					χ^2 (df)									
	시집(합가)	친정(합가)	신혼집(분가)	기타	전치										
1960년대	178(82.4)	4(1.9)	32(14.8)	2(0.9)	216(100)	*** 277.48(20)									
1970년대	20(35.7)	1(1.8)	30(53.6)	5(8.9)	56(100)										
1980년대	53(32.1)	0(0.0)	109(66.1)	3(1.8)	165(100)										
1990년대	23(15.6)	5(3.4)	111(75.5)	8(5.6)	147(100)										
2000년대	7(6.2)	1(1.0)	95(91.3)	2(1.9)	104(100)										
전체	281(40.8)	11(1.6)	377(54.7)	20(3.8)	689(100)*										

* 결측치 제외

*** P<.001

현구고례를 행하는 관행이 등장한 시점과 동일하게 나타나, 예식장에서 폐백을 한 후 신혼여행지로 바로 떠나는 신랑신부들에게 여비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혼례식을 마친 후 서양의 혼례풍습인 신혼여행은 60년대 이전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70년대부터 부산(18.5%)이나 제주도(18.5%), 설악산(16.7%) 등 국내 유명관광지로 가는 것으로 신혼여행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에는 50.9%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으며, 90년대에도 대부분 제주도(49.3%)로 가고 동남아(18.5%)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는 동남아(48.1%) 외에 미주(10.6%) 등 해외로 가는 경우가 제주도(20.2%) 등 국내여행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식 혼례형태가 한국사회 적극적으로 수용된 이래로 신혼여행도 이전 일반적인 현상이 된 지 오래이며, 80년대 말 해외여행 자유화로 외국으로의 신혼여행은 또 하나의 혼례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표 15 참조). 혼례를 마친 후 신집살림에 관하여,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시집으로의 합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시집으로의 합가는 70년대와 80년대까지도 응답자의 30%이상 행하던 신집살림 관행이었다. 그러나 90년대는 75.5%가 2000년대에는 절대 다수인 91.3%가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여 분가하여 신집살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개화기 이후 한국사회는 서구 문물의 도입, 신흥 종교의 수용 등 사회변화의 격동기과정에서 고유의 전통적 혼례관행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광복이후 또 한 차례의 격난을 겪으면서 재건의 의지로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이 산업화과정에서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한국사회 혼례관행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결국에는 물질주의 산업 경제와 혼례관행은 연동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진행된 산업화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국사회 혼례관행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혼례관행의 생활 문화적 특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시기별 혼례관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사례조사를 겸하였다. 조사된 연구의 결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혼례과정 중 선례관행에 해당되는 사주단자와 택일, 예단, 함 등은 전통 혼례관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관행이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유지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관행은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택일은 전통적 관행인 길일을 택하는 것에서 공휴일이나 휴일을 택일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었으며, 사주전달의 관행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예단은 현물예단의 관행이 현금예단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함의 관행은 지속되고 있으나 함진아비는 친지가 아닌 신랑이 직접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약혼식 대신 부모님과 당사자만 참석하는 상견례로 대신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약혼식의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둘째, 혼례과정 중 혼례식에 해당되는 본례관행에는 혼례장소 및 혼례준비과정, 혼인잔치 등의 관행이 포함된다. 현대식 혼례형태가 등장한 이래 산업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관행이 본례이다.

본 연구결과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혼례식이 주로 집에서 전통식으로 행해졌으나 70년대 이후에는 현대식 혼례형태로 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드레스와 메이크업, 사진촬영은 70년대 이후부터

예식장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00년대부터는 전문 숍(shop)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주례인도 전문 주례인으로 모시는 경우가 늘면서 혼례관행의 상업적 요소가 짙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웨딩드레스와 웨딩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은 오늘날 웨딩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은 한때 예식장 장소 사용 시 예식장 측이 제시하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예식장내 직영형태의 상점을 이용해야 하는 품목이었다. 이와 같은 “끼워팔기” 관행은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여 사회적문제가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2001)하기에 이른다. 이후 예식장 부대시설 이용보다는 웨딩 전문 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예식장에서는 부대시설보다는 피로연장 이용으로 상업구조가 전환되었으며, 잔치음식도 잔치국수에서 최근에는 뷔페 등 서양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혼례식 후례 관행인 현구고례, 신혼여행, 신접살림 등에서도 산업화의 영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현구고례는 대부분 혼례식 직후에 하고 있었는데,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시택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7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예식장 내 폐백실에서 현구고례를 하고 있었다. 절값의 관행이 일반화된 것도 70년대 이후부터이고 또한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7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한편, 신접살림은 기존의 합가(合家)에서 70년대 이후 분가(分家)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 매 혼인시기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혼인 후 분가하는 경우는 90%를 넘었다. 신접살림을 따로 차려 분가한다는 것은 곧 신혼집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혼집 마련은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혼례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신혼집 마련의 주 담당자인 신랑 측의 몫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가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혼례비용에 있어서 혼례식에 드는 비용보다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혼례관행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화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혼례관행은 두 차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혼례관행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와 2000년대가 혼례관행의 변동을 가져온 시기라 할 수 있다. 60년대 후반 전문예식장이 농촌에까지 확대되면서 예식장 중심의 서양식혼례는 70년대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또한 혼례식에 해당되는 본례 관행이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혼례관행이 산업구조 속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예식장 내 부대시설로서 미용실과 드레스, 사진 이용이 2000년대 들어 부대시설 이용이 크게 줄고, 전문 숍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앞으로 전문 드레스 숍이나 혼례 전문사진관 등 혼례산업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회제도, 산업구조, 국가정책 등과 함께 외국문물의 유입과 개방 등을 통해 혼례관행의 변화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혼례관행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었지만, 본 연구결과 산업화 과정에서 혼례관행이 새로이 나타나거나 변화하였고, 당시에 혼례를 치른 사람들이 산업화의 양상에 따라 또 다른 혼례관행을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예식장 내의 폐백실 장소를 마련하여 혼례식 후 현구고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업이 혼례관행의 변화를 이끈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식장

의 폐백실 제공으로 혼례식 후 치르는 현구고례 과정에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신부들을 위한 절값관행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혼례관행의 변화에는 산업의 영향, 사회제도 등 외부적 환경요인에 국한시켜 설명하기 보다는 혼례시기의 시의에 따른 또 다른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 혼례관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기사와 문헌을 통해 소개되어왔고, 실증적 조사를 통해 혼례관행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혼례를 치르는 행위자의 태도와 선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혼례관행은 혼례산업과 연동된 규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혼인시기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임의 분류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화 이후 혼례시기 구분과 변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또한 혼례산업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이유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산업화이후 혼례관행의 변화과정을 혼례절차, 혼례복, 혼례음식 등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혼례관행에 대한 동향분석 자료는 매년 보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선미(1999). 한국혼인의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2) 강정림(2001). 한국 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계선자, 이연숙, 이정우, 양숙희, 박미석, 최재순, 강기정, 김연화, 박남희, 이미선, 이영호, 임춘희, 차성란, 최미경(2009). 가족과 문화. 서울 : 교문사.
- 4)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 교문사.
- 5)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례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김미숙, 김종숙, 김현주, 김혜경, 박옥희, 원영희, 이경아, 이선미, 이선이, 이선주, 이여봉, 장화경, 함인희(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 학지사.
- 7) 김인옥 (2007). 가정의례연구. 서울 : 한국학술정보(주).
- 8) 김인옥(2008).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181-1195.
- 9) 김주희(2003). 일제 후반기 결혼예식과 혼수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가족과 문화 15(3), 87-108.
- 10) 김혜선, 박혜인(1993). 한국가정생활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11) 박민자(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도시 중간계층의 혼인 거래 관행에 관한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12) 박숙자(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서울 :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13) 박정순(1977). 우리나라 혼례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4), 77-89.
- 14) 박혜인(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한국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서울 :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15)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31-54.
- 16) 안정남(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현대결혼의례의 의미. 서울 :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17) 안혜숙, 주영애, 김인옥(2003).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 도서출판 신정.
- 18) 안혜숙, 김인옥(2007). 결혼과 가족. 서울 : 청목.
- 19) 오재환(2001).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의례문화의 변화. 사회조사연구 16, 169-195.

- 20) 이광자(1999). 광복이후 우리나라 혼·제례 변화에 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153-186.
 - 21) 이영재(2008).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 실천민속학 연구 12, 5-42.
 - 22)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 : 집문당.
 - 23)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47-161.
 - 24) 조남훈, 서문희, 계훈방, 김현옥, 배화옥, 이한우(1993).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조사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25) 조수연(2007). 한국결혼시장의 현황과 예측.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최진은(2006). 우리나라 웨딩 문화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6). 2005년 한국의 결혼문화실태 조사 보고서. (주)선우.
 - 28) 홍나영, 이은진, 박선희 (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141-156.
 - 29) 황경애, 이길표(1994a). 혼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3-174.
 - 30) 황경애, 이길표(1994b). 혼례행례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1) Featherstone, M. (1992). Postmodernism and the Aestheticization of Everyday Life.
 - 32) In S. Lash & J. Friedman.(eds). Modernity & Identity: Oxford/Cambridge. USA.
 - 33) Robert H. Lauer, Jeanette C. Lauer(2007). Marriage & Family. The McGraw-Hill companies in USA.
 - 34) George P. Monger(2004). Marriage Customs of the World from Henna to Honeymoons. ABC-CLIO, Inc. in USA.
- 투 고 일 : 2010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8월 19일